

한-아랍에미리트(UAE)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 한-UAE 대통령 정상회담 계기 총 8건의 협정,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체결
-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 다양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5월 29일(수)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및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은 UAE 측과 총 8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1. 정부간 협정 및 양해각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 정상 임석 하에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였다.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

(탄소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또한 안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감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CO₂ 국경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CO₂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간 협정 및 양해각서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UAE의 기업들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 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UAE원자력공사(ENE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 기업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제안을 도출하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는 UAE 루와이스 지역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인프라(인수 터미널 등) 투자, CCS 운송 등을 포괄하는 수소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 상호 공동 개발·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양해각서)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국제 공동비축사업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회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이 계약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희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 비상시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방한 시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의 물량 확대를 요청하였고, 두 기업은 공동비축사업 확대 외에 석유 탐사·개발, 회수 증진 연구개발(R&D)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협의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기존 양사 간의 MOU를 수정·연장하기로 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산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여 최종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6척(약 15억 불 규모, 옵션 있음)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공동투자 협력 양해각서)

(주)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베트남 내 화학공장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문의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의 원재료 기반의 경쟁력과 (주)효성의 폴리프로필렌/프로필렌 공정, 글로벌 영업망 및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를 결합하여 사업의 규모와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두 기업의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정부 후속 조치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과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으로 추진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UAE의 관계가 원전, 탄소감축, 청정수소, 조선 및 석유화학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추진상황 점검, 애로해소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권현철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유재욱 (044-203-5721)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명지혜 (044-203-5225)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양재원 (044-203-5313)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국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3-5153)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3953)

참고

韓-UAE 정부 및 기업간 양해각서

통상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韓) 산업부 장관 ↔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	-아랍권 국가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 보도 참고자료 별도 배포
에너지	탄소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韓) 산업부 장관 ↔ (UAE) 산업첨단기술부장관	-국내에서 발생한 CO ₂ (예: UAE의 LNG 도입, 청정수소 생산시)를 포집·액화·저장해 UAE 저장소로 이동·저장 등 CCS 사업 장려 -CO ₂ 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국가간 협약 체결 대비 양해각서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MOU (韓) 한국전력 사장 ↔ (UAE) ENEC 사장	-제3국 원전 공동 개발,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추진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신형시장 연구, 사업 제안 도출, MOU 이행 모니터링 및 조정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 (韓)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 ↔ (UAE) ADNOC 사장 ↳ 석유공사, 삼성엔지니어링, GS에너지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국내 유통인프라(인수터미널 등) 투자, CO ₂ 운송 등을 포괄하는 수소 쉼밸류체인 상호 공동 개발·투자 합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양국 수소협력 확대 기대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MOU (韓) 한국석유공사 사장 ↔ (UAE) ADNOC 사장	-'23.1월 체결한 공동비축사업의 계약물량 확대 협의를 지속하고, 석유개발사업 및 R&D 추진을 협력
산업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 (韓)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 (UAE) ADNOC 사장	-기본 6척의 대형(174k급)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 (韓) 한화오션 대표이사 ↔ (UAE) ADNOC 사장	-선가 : 척당 2.5~2.6억불 * 최종 척수는 협상 과정에서 확정 예정
	석유화학 공동투자 협력 MOU (韓) (주)효성 대표 ↔ (UAE) ADNOC 사장	-베트남 내 화학공장(Vina Chemicals) 공동 투자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및 UAE의 아시아 지역 진출 협력 -ADNOC의 Oil & Gas 기반 원재료 경쟁력과 효성의 글로벌 영업망 및 LPG 저장시설을 결합해 양사의 사업가치 제고